

낙서로 만나는 ‘잉여’ 로운 청춘



그가 모은 거리의 낙서들은 청춘의 불안의 표현이자, 우정과 사랑의 약속으로 읽힌다

인터뷰 - 도인호 동문
《청춘의 낙서들》저자

이진우 기자 urusa93@khu.ac.kr

#. 우리는 흔히 ‘낙서’라면 오래된 벽면에 지저분하게 휘갈겨진 글씨와 그림들을 연상한다. 낙서는 ‘금지된’ 행동이다. 공공 질서를 위반하는 일이다. 그렇기에 낙서는 반항하는 하위문화로 취급받아왔다. 하지만 이런 낙서를 수집하는 사람이 있다. 《청춘의 낙서들》의 저자 도인호(조경학 2005) 동문이다. 그는 ‘낙서수집’ 따위의 ‘잉여로운’ 행동을 후배들에게 과감히 권했다.

‘포스트모더니즘 미학과 예술’ 과목을 강의하는 서정자 교수는 ‘강연회’를 준비했다. ‘뻔한’ 강연회를 예상하던 순간, 강단에 선 그는 스스로를 ‘낙서수집가’라고 소개했다. 수많은 수집가를 들어봤지만, ‘낙서’를 수집하는 사람이라니, 《청춘의 낙서들》의 저자 도인호 동문과의 첫 만남이었다. 그의 강연이 끝나고 호기심에 도 동문이 운영하는 블로그 ‘서울의 낙서’를 찾아봤다. 벽에, 간판에 혹은 보도블럭에 써 있는 또는 그려져 있는, 심지어 새겨져있는 낙서들과 그의 이야기는 매력적이었다. 그

래서 그의 수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지난 4일 도 동문을 만났다.

도 동문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낙서를 수집하고 있다. 그가 ‘낯선’ 취미를 갖게 된 것은 잠실역 화장실 두 번째 칸에 적힌 ‘야한’ 낙서를 본 다음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그 낙서는 여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위가 아주 높았다고 한다. 욕정을 화려하게 묘사해낸 음담패설들은 기억 속에 깊이 자리 잡혔다. 제대한 후 그는 다시 잠실역 화장실에 들르게 됐고, 되살아나는 기억에 두근대며 연 두 번째 칸에는 다른 낙서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낙서가 지워지고, 새로운 낙서가 쓰인 일을 도 동문은 다시 경험한다. 집 앞 담벼락에 누군가 초록색 스프레이로 뿌린 자국 위에, 다른 누군가는 ‘요상한 형’이라는 낙서를 남겼다. 매일 보는 그 담벼락의 낙서에 정이 들던 무렵, 환경미화와 함께 담벼락은 ‘깨끗해’졌다. 도 동문은 “내게 안도감을 주는 조금 특별한 의미의 낙서가 어느날 지워져버렸다. 그때부터 낙서들이 언제까지 지워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수집’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후 서울 곳곳으로 발걸음을 옮긴 도 동문은 낙서들을 찍어 블로그에 게시한다. 사

만 짚은 것은 아니다. 낙서에서 받은 단상과 추억을 글로 옮겼다. 그리고 이 글은 낙서와의 대화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남자 화장실 소변기 앞에 적힌 ‘내가 너보다 더 커’라는 말에 그는 모욕감을 느끼며 ‘뭐가 이 자식아?’라고 답한다. 그렇게 채워진 ‘낙서 지도’ 속 사진과 글은 《청춘의 낙서들》이라는 책으로 탄생했다.

도 동문은 “편집자가 처음 ‘청춘’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다고 말했을 때 나는 반대했다. 다른 ‘청춘’들처럼 세상을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담스러웠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를 낙서와 함께 풀어내다 보니 《청춘의 낙서들》은 그의 청춘을 담은 책이 됐다.

좀 더 나아가 그에게 ‘요상한 형’이 안도감으로 다가온 것처럼, 그가 모은 거리의 낙서들은 청춘들의 불안의 표현이자, 우정과 사랑의 약속으로 읽힌다. 참을 수 없는 욕구의 배출이면서도, 위로하는 글귀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낙서가 ‘금지된’ 일임은 변하지 않는다. 일탈의 흔적을 보러 다니고, 심지어 모으는 일은 요즘 사회가 요구하는 청춘과 거리가 멀다. 낙서 따위에 관심을 갖는 도 동문 같은 사람들을 ‘잉여인간’

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는 이런 잉여로움이 ‘청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필요한 일이라고 반박한다. 그는 “후배들이 팽목적으로 학교를 다니는 모습을 많이 봤다”며 “학문이 아닌 학점을 챙겨야하는 사회와 대학가의 분위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후배들이 안타깝다”고 말한다. 그는 ‘청춘’은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고민하는 때라고 조언한다. 그는 “30대가 되어 고민하는 것은 주변사람에 대한 만행”이라며, “청춘을 고민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라”고 말한다.

하지만 도 동문이 수집하는 낙서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그는 그 이유를 “사람들이 더 이상 심심하지 않아서”라고 말한다. 반대로 심심할 겨를조차 없는 청춘들이 늘어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글 계속 쓰고 싶다. 가장 잉여로운 취미로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낙서가 주는 의미처럼 그의 잉여로움이 누군가에게 청춘의 새로운 의미를 보여줄 수 있을지 지금은 알 수 없다. 다만 그가 수집한 ‘LOVE YOUR SELF’라는 낙서처럼, 스스로를 더 사랑하는 청춘은 ‘지워지지 않는 낙서’로 남길 바라본다.

조별리그 1승 1무, 토너먼트 진출 청신호

U리그 왕중왕전

김윤철 기자 kycxellos@khu.ac.kr

우리학교 축구부가 경상남도 남해에서 개최된 ‘2014 카페베네 U리그 왕중왕전’ 조별리그에서 1승 1무를 거두고 16강 진출에 청신호를 켰다. 우리학교는 U리그 왕중왕전에서 중앙대, 동의대, 청주대와 함께 5조에 배정됐다.

왕중왕전에는 권역별 성적을 바탕으로 상위 32개 팀이 참가한다. 이후 조배정 및 추첨을 통해 8조를 각각 4팀으로 편성한다. 조별 리그에서 2위까지 16강 토너먼트에 진출하게 된다.

우리학교 축구부는 지난 6일 비자구장에서 중앙대와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렀다. 이 경기에서 고승범(스포츠지도학 2013) 선수가 두 골을 넣으며 2-2로 무승부를 거뒀다.

이어진 8일 조별 리그 두 번째 경기에서는 청주대를 상대로 후반전에만 4골을 몰아치며 대승을 거뒀다. 후반 9분 유진석(스포츠지도학 2014) 선수가 선제골을 기록했고, 이어 12분에 김정세(스포츠지도학 2011) 선수가 추가골을 넣었다. 또한 선수간의 연계플레이도 두드러졌다. 후반 27분 유진석 선수의 스루패스를 받아 박인혁(스포츠지도학 2014) 선수가 가볍게 밀어넣으며 3번째 골을 성공시켰고, 후반 36분 김한솔(스포츠지도학 2012) 선수가 올려준 공을 유진석 선수가 그대로 성공시키며 경기를 4:1로 마무리지었다.

우리학교는 10일 12시 40분에 바다구장에서 동의대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U리그 왕중왕전 5조 권역별 성적	
경희대	4권역 2위, 7승 4무 3패
중앙대	3권역 2위, 6승 4무 2패
동의대	10권역 1위, 11승 2무 1패
청주대	5권역 3위, 6승 4무 4패

